

# 이탈리아 코모(COMO)에 까자 델 파쇼(CASA DEL FASCIO)의 디자인 전개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La casa del fascio" in Italian Como city

이대진(Lee, Dea-Jin)

영남대 건축학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2.

1. 서론

2. FASCISM건축의 탄생과 영향

3. FASCISM건축과 GIUSPPE TERRAGNI

4. 꼬모의 도시계획과 CASA DEL FASCIO

5. 전통적 디자인 해결 (1928년도 계획안)

6. 디자인의 모던화 방법 (1932년도 계획안)

7. 시공된 건물의 재해석

8. 건축디자인 전개방법의 연속성

9.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이탈리아 파시즘시대의 건축가중 가장 중요한 건축가인 쥘세페 테라니의 대표작인 까자 델 파쇼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 8월 1개월동안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꼬모에 있는 테라니의 문서창고의 원본자료의 재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미공개로 남아 있던 자료까지 분석하였다. 남아 있는 자료들 중 이미 공개된 자료와 지금까지 미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초기의 계획안에서부터 최종 시공된 계획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분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이 계획안에 관한 건축가 테라니의 기본적 접근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2개의 결론이 얻어졌다.

1) 초기 계획안에서 건립될 대지의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최후 완공된 건축물의 외형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접한 꼬모 듀오모성당의 파사드와 물리적 형태 면에서 결정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건축가는 계획안을 위해 형성한 이미지가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로 표현된 과정을 조사해 보면, 비록 문서창고에 남겨진 자료의 순차적 발전 순서에 따른 분석은 불가능하였지만 초기 계획안에서 형성된 기본 개념적인 이미지는 수차에 걸쳐 변경된 계획안은 물론, 최종 시공된 건축물의 형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ze for Casa del Fascio, of Giuseppe Terragni, an important architect of fascism period of Italy. Based on the spot reinvestigation of first copies and unpublished data in a archive for a month of 2002. August, Terragni, Como, to compromise with the limit of studies up to the present. General's from early scheme to final constructed scheme, finally offered standard way to understand Terragni's scheme. Result of analyze are two conclusions.

1) It has direct bearings between physical environment of site which was to build from original scheme and final decided external form. Especially there is direct relation between facade and composition of Duomo Cathedral, in the center of Como.

2) Although the image for scheme by architect represented as a physical form which was impossible to analyze the data as development sequence from archive, it influences on the first image, which had changed many times, exists as important element to final constructed scheme.

(Keywords)

Fascism, casa del fascio, Giuseppe Terragni

## 1. 서론

건축가에 의해 표현된 현상(언어)들은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건축가의 마음(사고)로부터 표현된 현상(언어)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굴리스(Margolis)의 심리학<sup>1)</sup>에서 마음은 직접 관찰되지 않지만, 우리의 직관과 느낌은 마음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체계에는 “마음”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마음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더욱 어렵다. 건축가는 일반적으로 머리속에 무형적인 형상(일종의 아이디어의 물질화)을 이미지로 바꾼 후 유형의 형태로 표현하여 최종적으로 작업을 완성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물질적인 형태의 유형화를 통하여 구체적 형태로 존재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건축이후 건축의 다양성은 건축물의 이해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세기초의 이탈리아 건축(특히 파시즘시대 건축)들은 현대 이탈리아 건축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정치적 건축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현대 이탈리아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시즘시대의 대표적인 몇 개의 작품 중에서 쥬세페 테라니(GIUSPPE TERRAGNI)<sup>2)</sup>의 파쇼의 집(CASA DEL FASCIO)은 근대 이탈리아 파시즘건축에서 하나의 기념비적 건물이다. 이 건물은 단순히 파시즘시대의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파시즘의 추종자의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될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sup>3)</sup>

지금까지 쥬세페 테라니(GIUSPPE TERRAGNI)의 계획안<sup>4)</sup>들은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고, 이 까자 델 파쇼(CASA DEL FASCIO)의 계획안은 그중 가장 알려진 건물로 단행본으로도 몇 권이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sup>5)</sup> 그러나, 현재까지 출간

된 관련된 자료들은 디자인 초기의 발전 단계과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고 파시즘건축과 TERRAGNI건축의 상관성과 건물형태 구성의 논리성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까자 델 파쇼(CASA DEL FASCIO)의 계획안에 관련된 내용 중 아직 연구가 미흡한 디자인 초기 발전 전개과정 부분에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 2. FASCISM건축의 탄생과 영향

현대 이탈리아 건축은 파시즘건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까지 연속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던 고전주의 영향은 로마제국의 영광을 주요 가치관으로 숭배하는 민족주의적 가치관과 연관되면서 파시즘건축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시대의 파시즘건축은 새로운 사회주의건축인 러시아 구성주의건축<sup>6)</sup>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새로운 근대건축을 추구하는 집단의 영향도 받게 된다. 이 당시 이탈리아 대표적인 건축운동은 북부지방인 밀라노와 토리노를 중심으로 1930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 Movimento Italiano per l'Architettura Razionale, MIRA)이 있다. 구성원의 대다수는 밀라노출신의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되었고, 대표적인 건축가는 쥬세페 테라니(GIUSPPE TERRAGNI)이다. 건축가 테라니는 르 꼬르뷔제와 같은 건축경향을 발전시키면서 상존하고 있는 이탈리아 고전주의건축과 부득이한 공존<sup>8)</sup>을 시도하였다. 고대 이탈리아의 찬란한 전통건축의 보존과 새로운 건축의 발전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년 정도 계속된 파시즘시대의 건축경향은 크게 두 가지의 경쟁적인 경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재해석과 새로운 건축으로 수용하는데 상이한 방법으로 고대 로마 유산을 이해했다. 중요한 대표적인 건축가는 2부류로 크게 압축할 수 있는데, 신고전주의<sup>9)</sup>인 마르첼로 피아첸티니(Marcello Piacentini)와 앞에 언급한 “그룹 7”의 대표적 건축가인 테라니가 있다.

르 꼬르뷔제의 혁명적인 건물들은 물론, 미래주의자들의 기계적인 미에 관한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받은 테라니가 속해 있는 그룹의 건축가(MIRA)들은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면서 고대 로마제국시대 이탈리아반도를 지배했던 건축의 고전주의 주제

1) 마음을 인지적 상태를 갖거나 획득하는 유기체(또는 특정 시스템)의 능력으로 규정한다. 마굴리스는 인지적이라는 말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만, 대략 어떤 것을 알고 느끼고 자각하며, 동시에 바라고 계획하고 두려워하는 능력으로 특징짓는다.(Joseph Margolis 저, 박주용,박창호역, 심리학의 철학, 성원사, 1990.9, p 156)

2) 1904년 4월 18일 밀라노지방의 메다(Meda)에서 태어나 1926년에 Figini, Frette, Larco, Libera, Pollini, 그리고 Rava와 함께 '그룹 7'(Gruppo 7) 구성하면서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 형성한다. 1932-1936년 사이에 까자 델 파쇼(Casa del fascio)을 건설하면서 대표적인 이탈리아 파시즘건축의 대표적 건축가가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탈리아 파시즘시대에 중요한 건축 현상설계에 참가하였다. 1943년 7월에 발칸과 러시아의 전쟁에 참가한 후, 신경쇠약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와 그해 7월 25일 사망하였다.

3) Cesare De Seta, Architeti Italiani del Novecento, Laterza ed., Bari 1987, p.135

Pagano e Terragni, Sironi e Bontempelli, Cagli e Gentile, e via dicendo furono tutti, e convinti, fascisti (...) Infatti le architetture di Terragni e le periferie urbane di Sironi, per restare nell'ambito di questo esempio sono opere di artisti fascisti, ma non sono opere fasciste

4) 대표적으로 1998년 밀라노의 Triennale전시관에서 작품전시와 함께 출간된 Giorgio Ciucci, Giuseppe Terragni -Opera completa-, Eleta, Milano, 1996 책에 테라니의 전 작품이 연대별로 소개되어 집대성되어 있다. 본인이 Como시에 있는 테라니 재단에 확인한 결과로는 전체 작품은 소개되었으나 중요한 도면들은 아직 미공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5) Alberto Artoli, Giuseppe Terragni -la casa del fascio di como, BetaGamma editrice, 1989

이외에 국제적 전시회와 책으로 출간되면서 소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번 단독 연구서의 출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전개방법과 결과에 대한 연구 특히, 진행된 절차와 아이디어

에 관하여 연구가 미흡하다. Como의 문서참고에 현존하는 자료는 정리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나 시기별 디자인 발전 순서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6)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에 의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파시즘을 로마에 수립한다.

7)독일의 Bauhaus와 네덜란드의 De Stijl운동과 함께, 1917년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예술과 건축에서도 젊은 소련연합의 아방가르드 예술이 존재하였다. ( Jurgne Tietz, Storia dell'architettura del XX secolo, Konemann, Köln, Germany in italian, pp.34 )

8)필자는1926년 “그룹7”을 중심으로한 젊은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은 1917년 혁명이후 러시아 구성주의의 아방가르드 건축과 예술과 연관을 시켜, 기존의 전통주의 건축의 재해석과 부정이란 의미에서 출발한 새로운 건축의 시도로 고려하고자 한다.

9)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축을 따라 나타나는 배치도에 중심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을 위치시키고, 기념비적 모습은 건물의 분절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좌우대칭된 입면에 석회로 포장된 기념물적인 입구가 존재한다. ( Giorgio Ciucci, Gli architetti e il fascismo, -Architettura e città' 1922-1944., Giulio Einaudi, Torino, 1989, pp.133)

에 관하여 근대의 미적 요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 FASCISM건축과 GIUSPPE TERRAGNI

파시즘건축의 본격적인 활동은 세계 1,2차대전 사이인 1927년부터 1943년까지 활동한 이탈리아건축에서 중요한 20세기운동(Movimento del "Novecento")고려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 예술적 생산의 경향을 압축하고 있다. 이 운동에 관련된 건축의 경향은 지면에서 치마까지 기념비적인 정면 뒤쪽에 기능성을 감추는 것으로 괴상한 균형, 강요된 화음, 엄격하고 안정되고 입면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앙 정면을 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0)</sup> 이러한 건축형태는 중세적인 고전주의 언어의 현대화과정 잘 보여 주고 있다.

테라니 역시 "20세기 운동"의 테두리와 합리주의 건축언어를 공유하는 시기<sup>11)</sup>를 넘어서 파시즘건축의 대표적인 합리주의건축인 "까자 델 파쇼"건물을 발전시키게 된다. "테라니의 파시즘에 대한 믿음은 미켈란젤로나 보로미니의 천주교에 대한 믿음과 유사하다. :관료주의적인 완만함은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정직한 파시즘이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수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깨끗하고, 반-변형적인, 반-국수주의자적인, 반-지방적인, 반-정치후원적인, 최종적으로 신화적인 파시즘이다. 더구나, 테라니는 순수할지라도, 고립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 파시즘 정권속에서 아마 밀수일지라도, 하나의 직접적인 문화의 개혁자로서 강요된 기회주의와 정말로 싸울 의향이 있는 하나의 '좌파'로 행동하였다.<sup>12)</sup>

파시즘과 관련하여 테라니의 건축작품들은 고대 로마건축의 영향을 순수한 장식적인 요소로 이용하고, 미래주의자 관점에서 역동적인 형태를 파시즘체제의 상징하는 기념비적 의미로 강조한다. 외부형태에서도 건물의 웅장함을 기념비적 은유의 지로 제안하고 있다. 테라니의 작품들은 이탈리아의 근대화운동 중에서도 '지중해성'과 그와 반대적 성격의 '900년대 운동'의 경향이 혼용되면서 지역성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건축경향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을 피하면서, 이탈리아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테라니의 작업은 그의 극적인 삶과 죽음으로 파시즘 종말로부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고, 세계 2차대전 이후 파시즘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건축의 근간을 이룬 건축가로 평

가받았다. "파시스타 테라니"의 건축은 "조작된 반파시스타"로써 이탈리아 중요한 건축 비평가인 제비(Bruo Zevi)로부터 순수한 파시즘 건축가로 이탈리아 현대건축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 4. 꼬모의 도시계획과 CASA DEL FASCIO

'까자 델 파쇼'는 테라니의 대표작이면서 이탈리아 파시즘시대의 기념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파시즘의 중심도시인 꼬모의 대표적인 건물로 구도심에 인접한 곳인 꼬모 대성당 배면쪽에 공지에 위치하며 1932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몇차례의 계획안 수정후 1936에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림 1.] 1934년, 테라니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 그룹CM8에 의해 꼬모의 도시계획을 위한 현상설계에 제출된 도면10번

꼬모시는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도심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꼬모 호수를 향해 열려진 상태로 있다. 지도 우측 상부에 위치한 대성당은 새로운 첼로가 놓여지면서 파손된 성벽으로 인해 성당 후면이 개방되었으며 까자 델 파쇼건물이 위치할 대지는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테라니는 까자 델 파쇼건물을 구도심 밖 공지에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1932년의 두 번째 계획안의 모던한 건물은 테라니의 기본적인 건축개념을 알 수 있는 예로, 꼬모 도시계획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통한 도시해 바탕아래에서 까자 델 파쇼건물과 동일한 모던한 형태의 건물로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테라니의 까자 델 파쇼는 1934년 꼬모의 도시계획을 위한 현상설계(그림1)의 도시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도심과 주변지역(신도시)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 까자 델 파쇼의 대지 분석은 대성당을 포함한 구도심의 전통적 건물과 전통의 연속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새로운 양식의 건물 신축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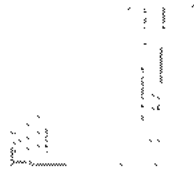
13) Giorgio Ciucci, Terragni e l'architettura, pp.23, (Giuseppe Terragni -Opera completa-, Eleda, Milano, 1996)

14) 1933년 10월에 현상설계가 공모되고, 1934년 6월에 테라니의 그룹은 당선이 되었다. 이미 이 현상설계가 있기 전인 1919년 현 재상태와 도시계획에 대해 1927년 11월 10일 "꼬모지방"잡지에 꼬모의 도시계획의 수정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테라니는 새로운 꼬모시의 도시계획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0) Bruno Zevi, Giuseppe Terragni, Zanichelli, Bologna, 1980, pp.12

11)테라니의 작품들은 Cappella funeraria per Domenico Ortelli(1929), Negozio Vitrum di Antonio Camanni a Como(1930), Salone Mantovani parrucchiere per signora a Como(1930), Ingresso, atrio e sala dei modelli nella Sartoria Moderna alla IV Triennale di Monza(1930), Progetto di hangar per idrovoltanti a Como(1930-1931)

12) Bruno Zevi, Giuseppe Terragni, Zanichelli, Bologna, 1980, pp.15 ...Abbiamo notato, all'inizio di questo saggio, il fascismo di Terragni e' analogo al cattolicesimo di Michelangiolo e Borromini: un fascismo virtuale, immaginario, onesto, capace di vincere le lenetezze burocratiche, e quindi di scegliere il meglio nel piu' breve tempo; un fascimo 'pulito', anti-trasformista, anti-sciovinista, anti-provinciale, anti-clientelare, insomma un fascismo mitico. Terragni tuttavia, benché ingenuo, non era un utopista isolato. Nel quadro del regime agiva una 'sinistra' che intendeva davvero combattere l'opportunismo imponendo, magari di contrabbando, una direttiva culturale rinnovatrice. ...



[그림 2] 건축개념 스케치

이 건물은 이탈리아 일반적인 도시의 문체인 구도시의 도시맥락 해석과 신도시지역의 새로운 시도를 동시에 해결한 좋은 예가 되었다. 이 건물은 이탈리아 근대 파시즘시대의 대표적 건물로 테라니의 작품 특징 중 하나가 된 현대적인 건물이면서, 고전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꼬모의 구도시지역에 위치한 대성당의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 맞은 편에 까자 델 파쇼의 대지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 후 성당과 구도심을 향한 관통도로가 정면에 위치하여 좋은 전망을 물론, 중요한 건축설계 요소로 준공 후 까자 델 파쇼는 대성당과 직접적인 면에서 내용과 형태 면에서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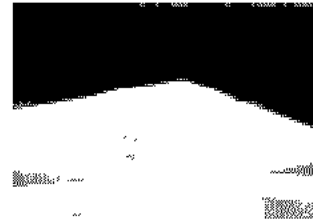
[그림 3] 대성당과 카자 델파쇼

까자 델 파쇼의 대지와 구도심의 주변환경을 피터 아이젠만은 '오브젝트로부터 관계'(from Object to Relationship)<sup>15)</sup> 절차로써 테라니의 디자인 방법을 이해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다양한 주변환경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건물은 독창적인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르 꼬르뷔제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섬세한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 5. 전통적 디자인 해결(1928년도 계획안)

1930년대와 1940년대 이탈리아건축의 경향은 신고전주의에서 국수주의적 요청에 대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역사적으로 '인터네셔널 스타일' 건축으로 발전한 경향도 있었다.<sup>16)</sup> 테라니의 초기의 계획안(그림4)은 이탈리아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에 이 건물의 도시적 성격과 잘 어울리는 좌우대칭 입면과 정면에 장엄한 출입구를 중앙에 위치시켜 전통적인 입면구성형식을 잘 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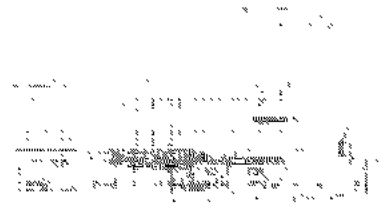
있다.



[그림 4] 1928년의 초기 계획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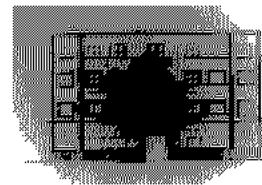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입면형태는 1920년 당시 일반적으로 건설되고 있던 신고전주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3층 정면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건물로 주변 건물과 구분이 되지 않고 주변 건물과 유사한 전통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안은 고대 로마의 위대한 전통을 전승하려는 파시즘당의 이미지에 어울린다.

1층과 2층사이에 입면에 슬라브판의 일부를 돌출시켜 수평적인 선을 강조하여 신고전주의 건축의 무거운 좌우대칭적인 입면을 경쾌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5] 1928년 계획안-3

그림6의 계획안은 그림4에서 까자 델 파쇼와 대성당의 상관성을 건축적 형태로 반영한 것으로 신고전주의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면 좌측의 2층과 3층의 발코니를 돌출시켜 좌우대칭의 입면을 불균형 입면형태로 바꾸었다. 돌출된 2층과 3층의 발코니로부터 대성당의 좌측에 위치한 도로를 통하여 도시전경을 볼 수 있다. 또한 구도심에서 대성당으로 접근하면서 까자 델 파쇼의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될 수 있게 계획이 되었다.



[그림 6] 1928년 초기 계획안-2

이 초기 계획안<sup>17)</sup>들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계획된 것으로 4층 평지붕으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안

15) P. Eisenman, Dall'oggetto alla relazionalita', in "Casabella", 344, 1970, pp.38-41

16) .V. M. Lampugnani, Architektur und Stadtebau des 20 Jahrhunderts, Verlag Gerd Hatje, Stuttgart 1980 (김경호, 이강호, 현대건축사조개관, 기문당,1990, pp.192)

17) 테라니는 1928년 8월 17일 그의 동생 아틸리오(Attilio) 편지 쓰기를 "꾸꼴리(Zuccoli)가 너에게 제안할 준비한 그 계획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했는지( 근대 로마의 건물의 값비싼 볼륨을 조연하면서)" 이 도면은 아마 꾸꼴리로부터 계획된 도면으로 테라니에게 어떤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 Ada Francesca Marciano', 안책, pp. 91에 27사진 설명에서)

(그림6)은이탈리아 신고전주의 건축의 전형적인 조형요소로 세부장식은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건축의 표현효과가 거대함, 기하학적 엄격함, 볼륨의 배치 그리고 폐쇄적인 벽면을 유지하면서 그림4의 입면에 비해 경쾌한 입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붕의 전통적인 기와지붕에서 평지붕으로 변경하여 보다 모던한 느낌을 주게 하였다.



[그림 7] 1928년 계획안-4

이 계획안(그림7)은 그림6의 입면과 동일하게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이면서 모던건축양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입면은 단일재료로 벽체를 형성하고 가로로 긴 창을 입면에 채택했다. 그림4, 그림5와 그림6의 입면과 동일하게 1층 상부에 슬라브판의 일부를 돌출시켜 단조로운 사각형 형태의 입면을 파괴하고 있다. 입면에 가로창의 적용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적 형태를 탈피하면서도 그림6의 정면 중앙부의 출입구와 엄격한 좌우대칭의 입면 형식은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 1928년 계획안-5

그림8의 계획안은 1928년도 다른 계획안에 비해 그 당시 일반적인 공공건물의 양식인 신고전주의 경향과 모던한 새로운 건축의 요구를 절충하여 좌우대칭인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입면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앙 출입구가 있는 볼륨은 평지붕을 택하여 모던한 형태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sup>18)</sup>

이 건물은 구도심과 주변지역(신도시) 접경지역에 시각적 효과가 높은 대지에 파시즘당의 선전장소로 이용되었다. 새로운 파시즘건축의 물리적 힘과 이념적인 언급의 핵심으로 당의 선전 수단으로써 식별될 수 있고, 당의 활동을 자극하고 통합하는<sup>19)</sup> 장소로 적합한 상징적 건물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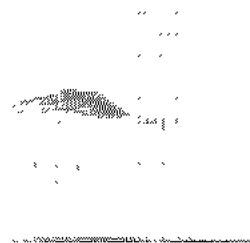
## 6. 디자인의 모던화 방법 (1932년도 계획안)

18) 교모의 테라니 문서참고에 이 계획안에 대한 입면과 각 층에 대한 평면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안으로 파시즘당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Albeto Artoli, Giuseppe Terragni La casa del fascio di como -quida critica all'edificio-, BetaGamma editrice, Milano, pp.17 ( ...Le case del Fascio rappresentavano dunque il nucleo di riferimento fisico e ideologico del potere; in esse confluivano le attività' nelle quali il partito si riconosceva e che sollecitava come mezzo di propaganda... )

테라니는 1928년에 이어 1932년의 파시즘당의 비서로부터 공식적인 계획안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에 그 계획안을 완성하여 그 해 12월에 이탈리아 건축잡지'quadrante'에 발표하였다. 1932년의 두 번째 계획안은 파쇼당의 비서국으로부터 "순수한 현대적 경향을 가진 건물이지만, 지나치게 모험적인 실험성을 장소에 강요하면서 평면의 기능성을 위협하는 과장된 경향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즉 파시즘당의 건축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구된 공간은 협회사무실, 조직원실, 휴게실, 250명 수용 가능한 집회와 모임을 위한 회의실, 당사사무실, 일반 사무실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규모는 1101mq(32.25X 33.15m)로 기능적인 하나의 볼륨으로 배치하기에는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았다.<sup>20)</sup>

1932년의 계획안은 파쇼당 비서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각종 요구를 수용 충족시킴으로써 마침내 로마로부터 승인과 입찰에 연관된 행정적 수속이 빠르게 진행된 후, 시공은 1933년 7월에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림 9] 1932년 두 번째 계획안-2

이 계획안(그림9)은 1932년도 계획안 중 길 건너에 있는 대성당의 입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안이다. 건물 좌측에 위치한 탑은 대성당의 종탑을 단순화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입면의 비례와 형태는 대성당의 입면과 유사한 전형적인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당의 입면은 기둥과 보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를 취하면서 보이드-슬리트 대조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종탑 부분은 상부에 종을 설치하여 성당과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 1932년 두 번째 계획안-1

이 계획안(그림10)은 그림9의 계획안에서 종탑부분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동하여 기존 종탑위치에는 무창의 단순한 벽체를 형성하면서 종탑의 위치가 바뀌었다. 종탑의 위치이동에도 불구하고 그림9의 계획안과 동일하게 종탑의 기둥과 보

20) Ada Francesca Marciano', Giuseppe Terragni -opera completa 1925-1943, Officina Edizioni, Roma, 1987, pp.306

를 이용한 단순한 입면구성방법은 유지하고 있다. 기존 종탑이 위치한 입면 위치는 단순한 무창 벽면으로 처리한 의도는 최종계획안의 벽면형태를 예고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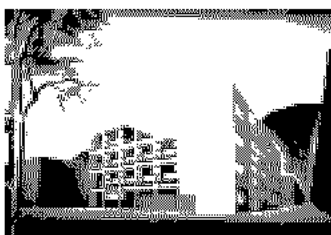
[그림 11] 1932년 두 번째 계획안-3

이 계획안(그림11)의 입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던 성당 종탑의 볼륨은 사라지고 단순히 종탑형태는 종탑모양과 유사한 벽체에 이미지가 잔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즉 종탑은 입면구성상 형태요소로만 존재하고 종탑의 통상적 형태적 의미는 상실하였다. 그림10의 계획안과 비교해서 종탑은 이차원적 벽체로 흔적이 남아있고 본당의 입면과 종탑의 입면이 중첩되면서 새로운 가로창이 새롭게 입면구성에 나타난다. 그림9와 그림10의 계획안에 비해 그리드에 의한 기둥과 보에 의한 엄격한 입면구성은 퇴색하고 입면구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 1932년 두 번째 계획안-4

이 도면(그림12)은 그림11의 계획안과 동일하게 종탑부분의 입면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나 단순히 종탑부분에 높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의 층높이 간격으로 종탑에 가로구조체인 보를 설치하여 종탑 높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종탑 흔적이 남아있는 위치에 있는 벽체는 파시스당의 건물을 알려주는 글씨가 벽면에 부조로 설치하여 종탑형태의 단순화된 모습을 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전 계획안과 달리 종탑이 위치한 1층 벽면에 새롭게 주출입구가 설치되면서 초기 무창 벽체의 개념이 변형되었다.



[그림 13] 1932년 두 번째 계획안-6

이 계획안(그림13)은 로마 파시스당 본부에 제출한 최종도면

과 거의 동일한 입면을 유지하고 있다. 종탑의 위치에 잔존한 벽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종탑 위치 전면부에 도로에서 건물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회랑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기존 종탑의 잔상이 수직적 요소로 건물입면에 표현되었으나 이 계획안은 종탑의 잔상이 수평적 요소로 변형되어 잔존하게 되었다.



[그림 14] 1932년 두 번째 계획안-5

이 그림14의 계획안은 입면 우측의 출입구가 설치된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입면이 입면 구성상 최종 건축된 건물과 동일한 입면을 가지고 있다. 대성당의 좌측에 위치한 구도심을 향한 도로로부터 바라본 투시도로 구도심으로부터 대성당에 접근하면서 건물의 인지가능성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7. 시공된 건물의 재해석

합리주의 건축가에 의해 자주 사용된 새로운 기법은 미적인 요구이상 문화적이고 이념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새로운 건축가세대의 이론들은 유용성을 위해 장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능주의, 합리주의와 기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실용성의 요구에 대응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생산된 재료의 이용과 연관된다는 생각과 관련된다.<sup>21)</sup> 시공된 건물의 디자인의 재해석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까자 델 파소는 중정 지붕은 14m 폭으로 입구까지 전체가 유리블럭으로 구성되어 규칙적인 외형과 함께 정사각형의 '우리의 집'으로 건설되었다. 구조는 유형학적 형태의 체계적인 기본 모듈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대지로부터 전체된 규모, 공간의 분배와 설비와 관련되어 이미 확정된 배치에 적응되도록 하였다.<sup>22)</sup>



[그림 15] 시공된 건물의 기하학적 분석

21) Alberto Artoli, Giuseppe Terragni La casa del fascio di Como -guida critica all'edificio-, BetaGamma editrice, Milano, 1989, p.61

22) Sergio Poretti, La casa del fascio di Como, Carocci editore, Roma, p.49

최종 건설된 계획안의 정면구성은 길이와 높이의 비를 1:2로 맞추어 정사각형의 평면 위에 입면 구성을 하여 사각형의 박스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면의 구성은 성당의 종탑의 절단된 형태에서 유추한 무창의 벽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기둥과 보에 의한 선적 재료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시공된 계획안은 유추작업을 통한 개념의 형태화와 정수비를 이용한 비례체계를 평면과 입면구성에 적용함으로써 간결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외부 표면을 유리 와 지중해식 건축을 추구하며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고전주의적 기하학적 구성에 따라 실내공간의 채광을 위해 창문을 설치하였다. 외부마감재료의 단순화 즉 대리석과 유리의 사용은 엄격한 비례에 의한 전통주의자들의 고대양식을 수용하면서 근대 디자인에서 본질성과 순수성을 표현하는데 완벽하고 적합한 재료였다. 페라니는 고전주의적 건축요소와 모던 건축의 새로운 건축요소의 해석을 통해 접목을 시도했으며 형태에서 대성당의 이미지의 단순화과정을 통해 논리적 해석과정과 함께 새로운 모습의 대성당의 이미지를 함축하여 까자 델 파쇼에 표현하였다.

### 8. 건축디자인 전개방법의 연속성

페라니의 건축 디자인에서 전개방법은 이미지의 단순화와 의미의 내용을 엄격한 비례법칙에 의해 입면과 평면구성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까자 델 파쇼 이후 페라니의 작품 속에서 연속적으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6] Asilo infantile Antonio Sant'Elia a Como, 1936-37

안토니오 산델리아 유아원(그림16)은 용도상 까자 델 파쇼와 무관한 건물이지만 건물의 입면은 물론, 평면구성상 중정을 위치시켜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건물 좌측 부분의 볼륨은 까자 델 파쇼의 우측 종탑 흔적의 또 다른 변형으로 판단된다.

리소네의 까자 델 파쇼는 꼬모의 건물에 비해 보다 명쾌하게 종탑의 부분이 입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10의 경우와 동일한 위치에 종탑이 있으나 몸체부분과 종탑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리소네의 까자 델 파쇼는 동일한 용도의 건물이나, 다른 건축조건은 물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당이 주

[그림 17] Casa del Fascio di Lissone, 1938-1939

변에 존재하지 않으나 꼬모의 입면 구성을 가져와 유사하게 이용하고 있다.

### 9. 결론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 결과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입면과 최종 시공된 건축과 비교하여 초기 도면과 최종 시공도면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해결방법<sup>23)</sup>에 대한 추측을 소개하고 있다. 최종 계획안의 해결방법을 역순으로 이끌어내 계획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꼬모의 페라니 문서창고에 보존된 까자 델 파쇼의 도면을 분석을 하여 건물의 입면의 구성을 논리적 디자인 전개과정을 추론 가능하였다. 본인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페라니의 건축설계 전개과정은 안토니오 산델리아 유아원(그림16)과 리소네의 까자 델 파쇼 등의 다른 계획안에서도 연구된 꼬모의 까자 델 파쇼의 계획안과 유사한(연속선상에) 전개과정을 그치면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까자 델 파쇼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계획안의 외부입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Bruno Zevi, Giuseppe Terragni, Zanichelli, Bologna, 1980
- L. Ferrario e D. Pastore, Giuseppe Terragni -La casa del fascio-, Mides, Roma, 1982
- Ada Francesca Marciano', Giuseppe Terragni - opera completa 1925-1943 -, Officina Edizioni, Roma, 1987
- Alberto Artioli, Giuseppe Terragni La casa del fascio di como, BetaGamma editrice, Milano, 1989
- Giorgio Ciucci, Gli architetti e il fascismo -architettura e citta' 1922-1944, Piccola Biblioteca Einaudi, Torino, 1989
- Thomas L. Schumacher, L'immagine della ragione -La casa del Fascio di Giuseppe Terragni 1932/1936, Nodo, Como, 1989
- Giorgio Ciucci, Giuseppe Terragni - opera completa -, Electa, Milano, 1996
- Alberto Artioli e Gian Carlo Borellini, Materiali per comprendere Terragni e il suo tempo, BetaGamma editrice, Milano, 1996
- Sergio Poretti, La casa del fascio di como, Carocci editore, Roma, 1998
- Jurgen Tieta, Storia dell'architettura del XX secolo, Konemann, Koln, 1998
- Lee Dea-jin, Il Fantasma in Architettura -alcune procedure formative dello spazio nel razionalismo italiano-, I.U.A.V., Venezia, 2001

23) Giorgio Ciucci, Giuseppe Terragni -Opera completa-, Electa, Milano, pp. 395